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6월 14일(주일) 제1299호



르완다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긴급구호

제3세계 코로나19 극복을 돕시다!

6월 비전헌금 NGO 더멋진세상 긴급구호 후원
7월 31일까지 온라인 정기후원약정 행사도 실시

6월 13일(토)과 14일(일) 봉헌하는 6월 비전헌금과 6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어지는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후원금은 제3세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호와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에 사용된다.

6월 비전헌금은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에서 봉헌하면 된다.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은 6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QR 코드나 홈페이지, 전화로 참여하면 된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에서 '더멋진세상'을 검색하거나 유튜브 채널 '더멋진세상' (better world)을 구독하면 NGO 더멋진세상의 활약상을 확인할 수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전 세계 24개국에서 맞춤형 긴급구호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긴급하게 식료품과 의료위생용품 등을 전달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5월까지 실시한 1차 긴급구호에서 13개국에 1억 6천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위생용품을 전달했다. 하지만 사역지 주민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끊긴 상태라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NGO 더멋진세상이 2차 긴급구호 수요조사에 나서자마자 8개국에서 7억 원 상당의 식료품과 의료용품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긴급하게 예산사용처를 긴급구호로 변경해서 집행하고, 코이카(KOICA)에도 긴급구호사역을 제안하는 등 재원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다.

NGO 더멋진세상의 코로나19 긴급구호는 현지 교회와 주민들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선교적 열매가 기대된다. 종교 목사(부르키 나파소 국생마을)는 "NGO 더멋진세상의 긴급구호는 주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02-2271-2248

후원: 573-910010-69205 하나은행



◀정기후원 바로가기
/ 김영선 기자

6.25 70주년 기념 마리아행전 '소망의 힘'

6월 24~26일 오전 10시 각 캠퍼스 본당
강사 이재훈 담임목사, 유기성 목사, 이인호 목사

625전쟁 70주년 기념 2020 마리아행전 '소망의 힘'이 막 오른다. 6월 24일(수), 25일(목), 26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마리아행전 '소망의 힘'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안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

하여 집회장소를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으로 결정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송출하는 실시간 집회영상을 시청하면서 각 캠퍼스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방식이다. 각 캠퍼스 본당에는 온누리교회 등 록교인이자 해당 캠퍼스 성도들만 출입할 수 있다.

2020 마리아행전에서는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이재훈 담임목사,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가 강의한다. 마리아행전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밝은색 상의와 어두운 색 하의를 입어야 한다. 또한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10면에 계속>

문의: 서빙고 02-3215-3667(3201)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

웹 세미나 Q&A 참가자 추천 방식

Q. 웹 세미나에는 언제 그리고 어떤 형태로 참가하게 되나요?

A. 웹 세미나는 7월 6일(월)과 9일(목) 오후 7시 30분~오후 9시 30분 각각 두시간씩 진행 예정이며, 웹 세미나에 참가하는 '토론자'와 '일반 참가자'로 구분이 됩니다. '토론자'는 서빙고 예배당(본당)에서 오프라인으로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토론하게 되며, '일반 참가자'는 서빙고 예배당(본당, 오프라인) 또는 영상(온라인)으로 토론에 참여하게 됩니다.

Q. '토론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A. 토론자는 공동체와 실행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6명 정도 규모로 선정 예정입니다. 7월 6일 진행될 1차 세미나는 공동체와 실행위원회 추천을 받은 온누리교회 성도 중심으로 선정하고, 7월 9일 진행될 2차 세미나는 주제에 따라 추후 선정 예정입니다.

Q. '일반 참가자'는 언제 어떻게 선정하나요?

A. 일반 참가자는 서빙고 예배당(본당)에서 오프라인 또는 영상(온라인)으로 토론에 참여하게 되며, 오프라인 참석자는 150분(사회적 안전거리 준수), 온라인 참석자는 500분 정도 규모로 진행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은 공동체 추천과 참가 신청 사이트를 통해 접수 예정이며, 선착순으로 마감 하려 합니다.

Q. 5월에 간담회를 통해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웹 세미나는 중복되지 않나요?

A. 5월 간담회와 설문은 일방향 의견수렴이었다면, 이번 세미나는 실시간 양방향 소통방식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함입니다.

Q. 이번 웹 세미나는 5월에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인가요?

A. 물론 5월 순모임 간담회에 관한 1차적 결과를 성도들과 공유할 예정이지만, 이는 중간보고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종 결과는 분석 완료 후 7월 중순에 공유 예정입니다. 이번 웹 세미나는 교회 리더십의 해석과 진단을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Top-down 보다는 성도들로부터의 Bottom-up에 중점 둘 예정입니다.

Q. 그럼 교회 리더십의 미래 대응 방향과 비전 제시는 언제 하는 건가요?

A. 교회 리더십의 진단과 향후 방향 제시는 9월 이후 제시될 것입니다. 5-7월간 3개월간 간담회와 웹 세미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은 향후 교회 리더십의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Q. 3개월간 진행되는 이런 미래 준비 과정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나요?

A. 코로나 이후 미래대응을 위해서는 비상한 영역 분별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 리더십에 의한 분별과 함께 공동체 모두의 참여에 따른 분별도 중요합니다. 지금 3개월간 진행되는 과정도 바로 이러한 분별과 지혜를 구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 이제 5-7월간 3개월에 걸친 성도들의 의견수렴 과정 이후 교회 리더십의 분석과 논의(8-9월 중) 과정을 거쳐 9월 이후 향후 진행계획과 방향 등을 제시할 것입니다.

A. 웹 세미나를 통한 또 다른 기대는 교회의 미래준비에 성도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성도들이 수동적 청중이 아닌 능동적 성도로의 역할 회복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새로운 소통 방법(성도와 리더십간의 양방향 소통)의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예배당 예배 '전화 예약' 실시

모바일 사용이 어색한 성도들은 전화로도 예배당 예약을 할 수 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18시)까지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목회행정실로 전화하면 된다. 영상 예배와 드라이브인 예배도 병행된다.

예약문의 : 서빙고 02-3215-3220, 3263, 3661

양재 02-570-7349, 7469, 7438 /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코로나19가 준 교훈

당연한 게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세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달라진 것과 변화해야 할 것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변한다.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남긴 또 하나의 교훈이다. 만나고 싶다고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세상이 찾아왔다. 공부는 학교에서, 일은 사무실에서 하는 게 당연한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과 인식, 인간관계, 그리고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할까?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더 이상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지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잃어버린 본래의 가치를 찾아준 측면도 일부 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집’과 ‘가족’이다.

인류는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지역봉쇄, 이동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시행했고, 시행하고 있다. 그 기간 동안 소중함을 잃어버렸던 집과 가족이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이고, 그들로부터 받는 영향이 개인에게 얼마나 지대한지를 깨달았다.

건축학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집의 구조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집에서 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집은 학습, 사무, 휴식 공간을 골고루 갖추게 될 거라고 예상된다. 이미 가정용 사무용품, 아동용 서적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한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올해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아동 및 청소년 도서판매량이 전년대비 각각 64%와 96.4%씩 증가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한국 교회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 예배가 영상 예배로 전환되자마자 가정에서의 개인영성과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부족함이 없도록 발 빠르게 대처했다. 온라인 영상 예배와 더불어 가정 예배 보급에 힘쓰는 등 그 노력이 상당했다. 그러나 실제 가정예배가 활성화되고, 가정에서의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이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물론 지금도 가정신앙문화 보급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단정해서 평가하는 것은 분명 이르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 예배당과 공동체에서 이뤄지는 예배와 모임, 신앙교육과 더불어 가정에서 이뤄지는 예배와 모임, 신앙교육 등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의 숙제일 수 있다.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는 ‘가족’

하버드대 의대 교수 조지 베일런트가 하버드생들의 일생을 72년에 걸쳐 추적한 연구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고 결론지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는 가족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집에서 이뤄지는 가족단위의 예배, 신앙생활이 중요해질 것이다.

계이다. 인류는 그동안 초연결사회가 되어가고 있었다. 온라인, 모바일, SNS, 각종 모임 등을 만들어 경쟁적으로 대인관계를 맺었지만 이상하리만큼 가족들에게는 소홀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 민낯이 드러났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이혼(Covidivorce)’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코로나19(Covid)와 이혼(divorce)의 합성어로 자가 격리 기간 생긴 갈등으로 이혼에 이르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족들과 부대끼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로 돌아가고 싶다는 외침이 곳곳에서 있었다. 우리는 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인간관계인 가족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왔을까? 이제 달라져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집에서 가족단위의 생활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자녀와 자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가족구성원들의 필요와 욕구, 신앙을 파악해서 맞춤형 가정신앙생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복음이 가장 필요한 시기 그런데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코로나19로 인해 인류는 죽음과 가장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6월 10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704만 명, 사망자는

40.4만 명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11,902명인데 사망자가 276명으로 여타 국가보다는 낮은 치사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고 죽음의 공포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나 그의 가족이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죽음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이 피부에 와 닿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코로나19 치사율이 4~5%대에 이른다. 남미와 인도가 새로운 코로나19 진원지로 떠오르고, 의료 환경이 열악한 인도차이나반도 등지에서는 더 많은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럴 때일수록 지구촌에서 교회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지구촌에서 교회를 비롯한 종교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종교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위로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행동만 골라하다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이끌었다는 일부의 시각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전 세계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고, 국내에서도 공감소비운동 등을 실시하면서 소외된 이웃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실의에 빠진 이웃들을 위로하고 전념하고 있지만 한 번 박힌 미운 털이 쉽게 빠지지 않고 있다. 교회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에는 아마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 지구촌에는 그 무엇보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웃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숙제

무턱대고 질타를 받은 교회들은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다. 긴 시간 동안 생명 같은 예배와 모임을 중지하고, 예배당마저 폐쇄했기 때문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부터는 그 어떤 집단보다 엄격하게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쉽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와 유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를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위기”라고 경고했다. 세계은행도 “코로나19에 따른 올해의 글로벌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말 그대로 코로나19는 세계 전쟁에 준하는 위기상황이다. 미국은 전시예비 발효하는 국방물자법을 발동시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의사결정 기준을 개인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태원발 확산, 쿠팡 물류센터발 확산 등 집단감염은 대부분 타인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주의와 집단이기주의에서 발생했다. 지금 사회는 교회를 비롯한 종교를 개인주의 혹은 이기주의의 집단, 잠정적인 코로나19 진원지로 보고 있다. 이타주의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웃사랑이다. 사회적으로 쏟아지는 비난과 못매를 감수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만이 회복의 열쇠다.

코로나19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다. 자택근무, 영상예배, 온라인 수업 등이 진행되면서 회사, 학교, 교회를 가지 않아도 일하고, 공부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이야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전달력 차이가 있지만 비대면, 언택트 사회가 더욱 발달하면 그 차이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인간인해를 이루던 거리는 한산한데, 전자상거래는 호황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일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별화를 이루는 게 숙제다. 예배당에서는 온라인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와 경험을 제공하고, 온라인에서는 예배당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만큼 풍성한 크리스찬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그 해답이 될 것이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둥이 되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누 구신지를 알려주는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알려주는 복음서는 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서로 비슷한 내용을 다루지만 각기 독특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치우친 견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전 방향 시각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각 복음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 혹은 2장이 전체 말씀을 요약하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조상에 대한 족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족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리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목적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상을 통해 자신을 자랑하려는 목적입니다.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려는 목적을 가질 때는 자랑스럽지 못한 조상이 나타난 족보라면 덮어버릴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조상이 나타난 족보는 보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을 것입니다. 둘째, 조상의 족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고 하는 목적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리고 할 때는 자랑스러운 조상들만이 아니라 자랑스럽지 못한 조상일지라도 모든 진실을 알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리고 합니다. 입양된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대부분 친부모를 찾는다고 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한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 그리움을 뛰어넘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자랑스러운 부모든 자랑스럽지 못한 부모든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한 가문의 족보를 살핀다는 것은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아픔도 알아야 하고, 영광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다루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가장 먼저 등장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족보를 통해 예수님을 아는 것은 복음을 깨닫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족보에 드러난 약속

마태복음 1:1~17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요한 변화, 새 시대 알리는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1절).

한글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시작하지만 헬라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시작하고, 다윗이 먼저 등장합니다. 여기서 족보라고 번역한 단어는 ‘게네세오스’인데 원형은 ‘게네시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창세기라고 부르는 ‘제네시스’가 나옵니다.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또 ‘기원’, ‘원래의 기록들’이라는 측면에서 ‘지니올로지’, ‘족보’, ‘계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또는 기원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족보는 마태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역사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족보를 사용했습니다. 족보는 긴 역사를 사람을 중심으로 압축하는 것입니다. 족보가 등장하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족보가 나오는 곳이 창세기나 역대기 같은 곳입니다. 창세기는 족보를 중심으로 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구나.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족보를 대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족보는 역사적 정당성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됩니다. 구약 이후 유대인들은 역사적 정당성을 족보를 통해 평가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이 알고자 하면 조상이 누구인지, 어떤 혈통을 통해, 어떤 조상을 통해 세상에 왔는지 그 뿌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조상을 통해서 세상에 왔는지, 역사적인 정당성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에 기초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료가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주도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을 설명해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읽었을 때 어떤 사람은 매우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매우 불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습관에 맞지 않고, 법칙에 맞지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를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이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과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분명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25년 후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3절에서 나오는 약속의 핵심은 땅의 모든 족속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삭의 삶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이 되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가누기도 힘들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약속을 보면 그 아들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신다고 했는데 솔로몬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는 분은 이삭과 솔로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말이나 영어에서는 아들을 ‘아들’이라고 하고, 아들의 아들은 ‘손자’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온통 ‘벤’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읽으면서 ‘벤’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들인지 손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직계 아들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 누군가, 또 다윗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약속을 이루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출생까지의 족보입니다. 둘째,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시대까지 다윗 왕가의 족보입니다. 셋째, 바벨론 포로시대부터 예수님에게서 완성되는 족보입니다. 이 세 부분이 각기 14대로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대를 3개 합하면 42대로 구성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14대가 아닙니다. 이 기간에 속한 부분을 구약에서 찾아보면 몇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벤’이라는 단어가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1대 아들일 수도 있고, 2대 아들일 수도 있고, 몇 사람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10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14대냐는 것입니다. ‘14’라는 숫자를 알파벳으로 변환시키면 ‘다윗’이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알파벳을 숫자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 용법’이라고 합니다. 알파벳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1이 되고, 그 다음은 2가 되는 식입니다. 역사를 세 단락으로 구분하는 것이 ‘14대’라는 것은 역사의 중심에 다윗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헬라어 원문은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시작이었지만, 핵심예언의 내용은 ‘다윗의 아들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메시아 예언의 집중적인 표현도 ‘다윗의 후손’이 훨씬 많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에게 주신 모든 예언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은 충격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바벨론 포로시대가 끝났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가 쓰여진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리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바벨론 포로시대인 것입니다. 바벨론 때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망했지만, 지금은 로마의 정책에 의해 살던 집에 살고는 있지만 또 다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생활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족보를 기록함으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죽음으로 끝나는 족보인데, 마태복음 1장에는 죽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수많은 약속을 주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핵심적인 내용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셔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14면에 계속)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천의 힘

읽는 것이 곧 힘이다!

읽기는 문해력을, 문해력은 삶의 만족도를 키운다!
해답은 신앙생활 ...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적용하고

크리스천이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런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이 그리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 아주 특별한 일부 사람들만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는 심각한 오해이자 착각이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숙명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그리 특별하거나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 하나가 크리스천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할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실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책 읽기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개권유익(開卷有益)”(송나라 태종).

책을 펼치면 유익이 있다는 뜻이다. 책 읽기의 중요함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부터 우리가 알만한 인물들은 모두 책 읽기를 좋아하는 책벌레였다. 그 대표적인 이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다. 세종대왕이 얼마나 책 읽기를 좋아했는지 충녕대군 시절 독서에 심취해 건강이 나빠졌을 정도였다. 아버지 태종이 신하들에게 “충녕대군 방에서 책을 모조리 치우라”는 명을 내렸는데, 병풍 뒤에 미처 치우지 못한 책 한 권을 발견하고는 무척 기뻐하며 그 책을 수도 없이 읽었다고 한다. 독서의 중요성과 유익을 너무나 잘 알았던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사가독서’라는 책 읽는 휴가를 주기도 했다.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책만 읽으라는 의미로 월급도 지급했다고 한다.

〈유리알 유희〉, 〈데미안〉의 저자 헤르먼 헤세 또한 엄청난 독서가였다. 할아버지로부터 그 영향을 받았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헤르먼 헤세는 빼곡하게 꽂혀있는 할아버지의 서재 방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책 읽기를 즐겼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도 엄청난 양의 책을 소유했는데, “인간이 자연에게서 거저 얻지 않고 스스로의 정신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세계 중 가장 위대한 것이 책의 세계”라고 말했다.

조선 후기 시인 김득신도 대단한 독서광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는 집 이름을 ‘억만재’라고 지었다. ‘책을 억 만 번 읽은 집’이라는 뜻이다. 그만큼 책을 좋아했다. 김득신은 열 살에야 겨우 글을 배웠을 정도로 머리가 나쁘고 재주가 모자란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당시 한문사대가인 이석으로부터 “그대의 시문이 당금의 제일”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뛰어난 시인이 될 수 있었던 데는 독서의 영향이 컸다. 그는 한 권의 책을 읽고 또 읽었는데 〈백이전〉은 무려 1억1만3천 번이나 읽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빌 게이츠, 워렌 버핏,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등 세계적인 거부(巨富)들의 공통적인 습관 중 하나도 책 읽기다.

책,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읽기와 문해력의 상관관계

책은 중요하다. 그래서 꼭 읽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서실태는 그다지 좋지 않다. 이는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독서 환경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격년으로 시행하는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종이책 독서율(1년 동안 일반 도서를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이 52.1%, 독서량은 6.1권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절반 정도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는 의미다. 더 심각한 것은 독서율의 하락이다. 해마다 독서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2009년 71.7%에서 10년 사이 20%포인트나 감소했다. 조사를 처음 시작한 1994년 86.8%에 비해서는 무려 34.7%포인트나 급락했다. 해가 갈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안 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도 발견할 수 있다. 책을 읽는 사람은 더 읽고, 안 읽는 사람은 더 안 읽는 독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다. 성인 평일 독서시간이 31.8분으로 2017년 조사 대비 8.4분 증가했는데, 성인 독서율과 독서량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독서시간이 증가한 것은 독서자(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독서시간이 36.7분에서 89.4분으로 무려 24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독서율 하락이 단순히 책을 안 읽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독서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문해력이 높다는 게 다수의 교육학자와 언어학자들의 주장이다.

문해(文解; literacy)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유네스코에서는 “다양한 내용에 대한 글과 출판물을 사용하여 정의, 이해, 해석, 창

작, 의사소통,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자를 읽을 수 있어도 문해력이 떨어진다면 문맹이나 마잔가지이기 때문에 문해율을 ‘실질적 문맹율’이라 부르기도 한다. 문해력이 책 읽기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 크라센은 “현대 사회는 더 복잡한 리터러시 능력(문해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잘 읽고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나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이 ‘독서’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책 읽기를 강조했다.

문해력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필수불가결의 요소다. 생각해 보라. 문해율이 떨어지면 각종 디지털 기기 조작과정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자연스레 유용한 지식과 최신 정보습득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농촌 노인의 문해력 제고 방안’(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농촌 노인 3분의 1정도가 문해력 저하로 인해 관공서, 은행, 우체국 등의 서류 작성과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처방전 이해나 공공서비스 적시 이용 등에도 어려움이 있어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한다. 문해가 가능한 노인이 비문해 노인보다 농업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2.8배,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4배, 삶의 질에 만족할 확률이 5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읽기가 안 되면 문해율이 떨어지고, 문해율이 떨어지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결국은 도태된다.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책을 읽고 문해력을 키워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신앙훈련 자체가 문해력 높이는 지름길

답은 너무나 쉽다. 크리스천이라면 더욱 간단하다. 우리가 교회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신앙훈련(성경 읽기, QT, 필사) 자체가 문해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책 중의 책 성경을 읽으면 된다.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약 1600년 동안 기록한 인류 최고의 책이다. 영국 과학자 패러데이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는 이 복된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사람들은 길을 잃는가?”라고 했을 정도다.

QT도 좋은 방법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한 내용을 삶에 적용하고, 변화된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QT의 모든 과정이 문해력을 높이는 과정이다.

자녀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라도 읽기, 특히 성경 읽기는 필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잠 1:7)이기 때문이다. 톨스토이는 “성경 없이는 자녀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베스트셀러 〈공부머리 독서법〉의 저자 최승필(독서교육 전문가)은 “읽기 능력이 높을수록 공부를 잘하고, 독서는 읽기 능력을 끌어 올린다”고 주장했다.

부모가 성경을 읽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게 문해력을 키우고, 신앙전수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르치려면 알아야 하고, 알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가 6월부터 시작한 ‘가스펠 프로젝트’가 정말 좋은 기회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인 예배와 차세대 예배에서 동일한 주제로 설교를 듣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그룹 나눔을 실시하는 프로젝트다. 가정에서의 신앙양육을 돕는 최적의 방법이다. 함께 읽고, 나누고, 적용하는 가스펠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일본 교육 전문가 후지하라 가즈히로가 자신의 저서 〈책을 읽는 사람만이 손에 넣는 것〉에서 “앞으로는 신분이나 권력, 돈에 의한 ‘계급사회’가 아니라 독서관이 있는 사람과 독서관이 없는 사람으로 양분되는 ‘계층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명심해야 한다. 읽는 것이 곧 힘이다.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천의 힘

책에는 생명력이 있다!

인생과 미래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다



김수민 권사
(동대문중랑공동체,
칼럼니스트, 기업인)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많은 영역이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보, 쇼핑, 학습, 취미 생활, 커뮤니티까지 삶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

는 손 안의 PC ‘모바일(스마트폰)’에 애어른 할 것 없이 더욱 몰두하고 있다. ‘모바일 활용능력이 생존능력’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것은 주일에배조차 모바일로 예배 시간을 예약하고, QR 코드로 좌석을 확인해야 참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비대면 사회에서 강화해야 할 습관 중 하나가 ‘책 읽기’라고 생각한다. 책에는 생명력이 있다. 책은 선한 영향력과 나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많은 책을 읽기보다는 좋은 책을 읽어야 한다.

“양서는 처음 읽을 때는 새 친구를 얻은 것 같고, 전에 정독한 책을 다시 읽을 때는 옛 친구를 만나는 것 같다”(골드 스미스).

한 권의 양서는 삶의 지표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만큼 영향을 주는 스승이나 친구와도 같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모든 양서를 읽는 것은 지난 몇 세기 동안 걸친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과연 어떤 책을 고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렇다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질문에 나는 ‘어떤 책을 고를 것인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싶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 분야는 최신의 연구서를, 문학에서는 최고(最古)의 책을 읽으라고 했다. 고전(古典)은 말 그대로 오래된 책이지만 늘 새롭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전 1:9)는 말씀같이 문명의 진화와 삶의 혁명 속에서도 타고난 인간의 본성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책을 고를 때에는 관심 분야, 취미와 관련된 책을 먼저 선택하는 게 좋다. 그것이 순수 문학이든, 실용서든, 인문학 서적이든 자신이 하는 일이나 취미에 관련된 분야의 책은 흡인력과 응용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 신앙서적의 경우에도 구원론, 교회론, 삼위일체론 같이 신앙의 기본을 다지는 신학적 내용의 전문서적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결혼 적령기 청년들

은 성경적 결혼관이나 직업관을 주제로 한 에세이적 신앙서적이 도움이 된다. 성경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해줌으로써 감정이나 욕심으로 인해 범하기 쉬운 시행착오들을 막아준다.

어떤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자 한다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관련성 있는 책들을 여러 권 읽는 게 좋다. 신문도 보수와 진보의 사설을 모두 읽으면 균형 잡힌 분석력을 갖출 수 있다.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이 되는 책을 병

서의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크리스천이라면 아침 큐티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성경 읽기가 좋다. TV와 인터넷을 끄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일이다. 귀로 듣는 오디오 성경도 좋지만, 아날로그식으로 성경책을 읽고, 깨달음과 적용을 적고, 필사하는 것은 뇌와 영성의 파동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많은 다양한 책을 읽기 위해 정독보다는 속독을 권장하는 속독법 책들이 앞 다퉈 나와 있는데, 저자가 오랜 경험과 탐구, 묵상 끝에 옮긴 글을 속독으로 해치우기보다는

몇 배는 어려운 현대문학을 가지고 소설과 희곡, 시와 시조를 공부하며 습작했다. 연필로 밑줄을 긋기도 하고, 때로는 형광펜으로 표시도 하고, 책의 위아래 것을 접어놓기도 했다. 다음에 읽을 때에는 접어놓았던 부분만 읽어도 전체 내용이 생각나고 도움이 된다.

“아침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새찬송가 579).

달고 낡은 책, 손때가 묻은 책에서는 삶의 연륜이 묻어난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소년소녀세계문학전집 50권을 사주셨다. 그 전집을 여러 차례 읽었는데 그때 품은 세계관과 소망이 살아가는데 자선이 되고 있다. 꿈 많은 소녀시절,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며 경제적 추락을 거듭하는 가운데서도 비참한 현실의 나라로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독서의 자양분 덕이었다.

대학교 때 처음 주님을 믿고 시작한 큐티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이었고, 지금까지 약속의 말씀으로써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수없이 체험한 것도 청년 시절부터 암기해 온 말씀의 힘이였다. 근래에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 변화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내용의 책을 읽고 공부하며 미래를 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증오가 바탕이 된 패역의 가치관으로 6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도 독서광이었다고 한다. 인간의 죄성은 인간이 쓴 책으로 바뀌지 않는다. 약간의 도움을 줄 뿐이다. 사람이 쓴 책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다. 인생과 미래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다. 세상 만물의 시작과 끝, 죄의 문제와 해결, 인격과 삶의 변화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스페인 속담에 ‘책과 친구는 수가 적고 좋아야 한다’고 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어야 할 책이 성경이라고 생각한다. 안중근 의사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 했지만, 우리는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죄의 본성이 심령과 입술에 영경귀를 낸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은 좌우에 날 선 검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게 하며 생명을 살아가게 한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람이 쓴 책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다.

인생과 미래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다.

세상 만물의 시작과 끝, 죄의 문제와 해결,

인격과 삶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변화된다.”

행해서 읽으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도스토예프스키나 톨스토이의 소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러시아 근대사를 함께 읽을 때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이밖에 같은 주제로 된 책을 동시에 읽어야 할 때는 두꺼운 책은 집이나 사무실에 두고 얇은 책은 출퇴근길이나 등하굣길에 읽는 게 부담이 적다. 하지만 흔들리는 버스 안이나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 안에서 이리저리 부대끼며 책을 읽으면 시력이 저하된다. 이럴 때는 출퇴근 시간을 앞당겨 앉아서 가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자. 자가용 운전자라면 오디오북을 활용하면 좋다. 모바일 오디오북 앱이나 유튜브를 통해 귀로 듣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낮 시간대에 도서관이나 집에서 책 읽을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잠자기 전, 소파나 침대 위에서 쿠션을 받치고 30분이라도 읽는 습관을 들여 보자.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독

곰침으며 정독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목차대로 읽는 게 지루해서 앞부분 몇 쪽 읽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목차를 보고 끌리는 내용부터 먼저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읽은 내용에 대해 누구한테 이야기하거나 간략히 글로 정리해보는 것이다. 베이컨은 “독서는 완성된 사람을 만들고, 담론은 재치 있는 사람을 만들며, 필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고 했다.

나는 책을 읽으면 인상적인 문구와 깨달음을 간략하게 메모해둔다. 예전에는 인터넷의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줄거리까지 요약해 책에 끼워넣곤 했는데, 나중에 열어보면 그때 읽었던 내용들이 생각나고 기록 당시의 미숙하고 기특한 가치관에 웃음 짓게 된다. 여고 시절, 문예반 지도선생님이 “책을 힘하게 다루라”고 조언하셨다. 교과서보다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란 김요셉, 김마리아 선교사가 전하는 근황

이란은 중동지역에서 첫 번째로 코로나19가 유행한 국가다. 6월 9일 기준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17만3,832명, 8,351명이다. 라마단 이후 신규 확진자가 2~3천명으로 늘어나면서 2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요셉, 김마리아 선교사 부부는 2017년부터 이란에서 언어훈련과 선교사역을 진행해 왔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김 선교사 부부는 지난 3월 19일 대한민국 정부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김요셉 선교사는 현지인들과 함께 있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자녀가 둘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전세기를 띄운다고 하더라고요. 두란노해외선교회본부랑 의논 끝에 일단 귀국을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귀국을 권장하는데 선교사가 현지에 남아 있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교회나 기독교 전체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귀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귀국해서 2주 동안 시설격리를 마치고 지금은 지인이 제공해준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귀국 과정에서 국가와 성도들이 베풀어준 섬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제가 뭐라고 정말 극진한 대접을 해주시더

“기도와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란 정부는 2차 확산이 현실화되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라고요. 그 덕분에 아무런 불편함 없이 시설격을 마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숙소도 아는 성도님이 비어있는 동안 지내라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은 성도님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란에서 섬기고 교제하던 성도들과는 모바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이란 자체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라 교회나 센터개척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이란 선교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원래 소규모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제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이란 선교 자체에는 큰 영향을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힘들 때 그들과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게 미안하고 아쉬울 뿐입니다. 현지 형제자매들이 제게 의료 환경이 좋은

한국으로 가라고 권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란의 한 카페에서 만난 A형제와 그 친구 B자매, 터키 선교사가 연결해준 C형제와 꾸준히 함께 교제하고 있었는데, A형제가 코로나19에 걸려 김요셉 선교사의 마음이 더욱 무겁다.

“이란 사람들은 한국인과 비슷한 정서가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을 잘 안합니다. A형제가 코로나19에 걸렸는데도 병원에도 안가고 집에서 나올 때까지 끔찍 앓았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정상 6개월 정도 일도 못하고 있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A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듭니다.”

재입국 시기를 정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지만 입국 시기나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7월 중순이 이란에서 거주하는 숙소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라 그즈음 이란에 가서 향후 거취를 정할 계획이다. 만약 김 선교사 부부가 이란에서의 사역이 어려워진다면 인접국에서 이란 이주민과 난민들을 섬길 생각도 하고 있다. 김 선교사 부부뿐만 아니라 임시 귀국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비슷한 상황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요셉공동체 드라이브인 예배 섬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교회가 처음으로 예배당 예배를 영상 예배로 전환했다. 교회가 문을 닫은 적이 처음이라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매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껏 주의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영상으로 한 달 넘게 예배를 드리다가 부활절부터 양재동 현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예배가 일부 재개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스테프로 지원하게 됐다. 사실 나는 토요일에 요셉공동체 안내팀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 이른 아침에 사역한다는 것이 부담감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아침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요셉공동체 청년들이 오랜만에 모여 사역할 수 있어서 기뻐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요셉공동체 청년들이 형광조끼를 입고, 환영인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줄지어 들어오는 차량들을 환영했다.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예배풍경이라 색다르게 보였고,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환영인사는 자동차 경적소리로 대신



드라이브인 예배는 양재동 현주차장에서 드려진다.

했다. 처음에는 이렇게라도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오래가지 못했다. 일요일 아침만 되면 왜 이렇게 출근지 불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사자 채팅방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예배가 끝나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이와 부모님이 이상준 목사님께 기도

를 받는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이 왁글 쏟아졌다. 좁다고 불평하며 섬기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둘째오빠를 하늘나라에 먼저 보낸 아픔을 겪었기에 마음이 더 아팠다. 그 아이와 부모님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드라이브인 예배에는 병환으로 예배당에 갈 수 없는 성도들이 많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더 책임감 있는 마음과 더

기쁜 마음으로 환영인사를 해드리고 있다.

잠시나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동안 끊임없이 사역에만 매달리다 보니 사역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고 착각했다. 공동체생활이 아니라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키기 힘든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 공동체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지원하고 나의 의지로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 없다면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섬김의 모습을 알려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섬김에 참여하게 되는 것 같다. 죄인인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용해주셔서 감사하다.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인생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지 기대가 된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 임선아 자매(요셉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청년들의 공감소비운동

W공동체-인천 동산교회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늘 아픈 손가락과 같던 동산교회에 방문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산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면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계속 이 상황과 사역, 그리고 동산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동산교회에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함께할 수 있음이 참 감사했다.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게 된다.

온누리교회 공감소비운동이 시작됐다. 온누리상품권으로 동산교회에 필요한 물품을 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역지의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 소식과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일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가장 먼저 동산교회 사역자들에게 공감소비운동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너무 기뻐하셨다.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공감소비운동이 없었더라면 기도제목 한번 묻는 것조차 어렵고, 마음도 불편했을 텐데 공감소비운동이라는 좋은 기회가 생겨



W공동체 청년들이 공감소비운동으로 구입한 물품을 동산교회에 전달했다.

서 온라인상으로나마 기도의 장을 열 수 있었다.

공감소비운동 지원금을 전달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한 물품을 각 가정에 전달하는 사역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물품을 받는 가정마다 감사하다고 인사하셨다. 그러면서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돈을 벌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힘든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주시며 기도해주시기를 요청하시기도 했다. 늘 어려웠지만 최근 들어 더 어려워진 이들을 위해 진심 어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공감소비운동이 없었더라면...



온누리교회의 지원에 감사하다고 인사하던 동산교회 사역자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진심을 다해 고맙다고 표현하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더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할 뿐이다.

예배당 예배가 재개되면서 동산교회 소식을 묻는 공동체 지체들이 많아졌다. 공동체 지체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공감소비운동을 통해서 동산교회를 도왔다는 소식과 동산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나눌 수 있어 정말 기뻐

다. 요즘은 공동체 지체들에게 동산교회와 교회사역, 사역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

함께 사역했던 많은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마음을 주셨다. 그 한마음으로 앞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W공동체와 동산교회를 엮어주셔서 함께하게 하셨던 날들을 회상해보니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다. 흘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동산교회와 W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한다. 다시 사역이 시작되는 그날까지 온누리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소망한다.

/ 김서영 자매(W공동체)

여호수아공동체-안산M센터

여호수아공동체는 안산M센터 필리핀 한글학교를 섬기고 있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생산 및 제조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리핀 청년들을 섬기고 있다. 필리핀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필리핀 지체들이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사역이 꽤 오랜 시간 멈춰버린 상태다. 그동안 멈춰진 사역으로 인해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필리핀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할 수 없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수록 그림고, 미안한 마음이 계속 커져갔다. 그러다 공감소비운동이 시작됐다. 공감소비운동을 통해 작게나마 필리핀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코리안 드림을 좇아 한국에 온 필리핀 청년들은 생활에 큰 타격을 받았다. 근무량이 평소보다 1/2에서 1/3 정도로 줄거나 아예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도 발생했다. 갈 곳이 없어진 필리핀 청년들도 있었다. 갈 곳을 잃어버린 필리핀 청년들은 성경공부나 기도모임을 위해 사용되던 '쉼터'에 모였다.

갑자기 많은 필리핀 청년들이 쉼터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식량 소비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외부에서 지원되던 쌀마저 코로나19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면서 필리핀 청년들의 상황이 정말 쉽지 않았다. 앞이 보이지 않을만큼 막막한 그때 때마침 온누리교회 공감소비운동이 시작됐다.

공감소비운동에서 지원해준 온누리상품권으로 쌀을 구매해서 안산M센터를 찾아갔다. 쌀을 들고 찾아가 필리핀 청년들이 있는 쉼터의 문을 열고 마주한 그들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쌀이 얼마 남지 않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공동체 지체들이 찾아왔다고 했다. 우리의 아주 작고 사소한 도움이 필리핀 청년들에게는 정말 크고 깊은 기도 응답이 된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도 가장 선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바라보며 필리핀 청년들도, 여호수아공동체 지체들도 다 함께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공동체 공감소비운동을 준비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소중한 하나님의 일에 의미 있게 쓰이기를 기도하며 헌금

하나님의 때와 방법, 가장 선하신 일



여호수아공동체는 필리핀 청년들이 생활하는 쉼터에 쌀을 지원했다.

하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을 보고 우리도 큰 은혜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획하고 준비해주신 온누리교회에도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지금 우리 모두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

다. 하지만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는다. 지금 상황을 보며 낙심하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나갈 새 힘을 허락해주실 것이다.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일을 이루어나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

/ 이명은 자매(여호수아공동체)

온 누리와 함께하는



코로나19 앞에 풍전등화 ‘위태로운 난민들’

6월 비전헌금 봉헌 및 온라인 정기후원약정

6월 13일과 14일 봉헌하는 6월 비전헌금과 7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온라인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 후원금은 코로나19 긴급구호사업에 사용된다. 코로나19 여파가 더 크고 충격적인 제3세계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제3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NGO 더멋진세상 우간다지부 정봉진 지부장이 섬기고 있는 아프리카 우간다 남수단 난민촌 사례를 소개하며 그 실태를 알리고자 한다. 우리가 왜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를 간곡하게 호소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두 달 넘게 지속되던 통행제한(Lockdown)이 6월 초순부터 조금씩 느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간다 정부의 통행제한 조치로 인해 난민촌 방문이 불가능했던 터라 어렵사리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NGO 더멋진세상 우간다지부 사무실이 있는 글루(Gulu)에서 북쪽 남수단 국경쪽으로 향했다. 백나일 강(White Nile)을 건너고, 비포장도로를 달려 4시간 만에 부드리(Budri)마을에 도착했다.

막상 도착한 난민촌은 겉으로 보기에는 코로나19 이전과 크게 다를 게 없었다. 하지만 굳게 닫힌 학교 정문과 예배가 멈춰버린 난민촌 교회들, 그리고 식량 배급이 줄어들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남수단으로 몰래 넘어가 농사를 짓고 돌아오는 남자들, 학교를 가지 못해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임신해 버린 7학년 여학생, 가난 때문에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서둘러 결혼시켜버리는 부모 등 안타까운 난민촌의 사연을 듣다보니 어느새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 ‘식량난’

현재 우간다 난민촌의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식량부족이다. 그동안 이곳 주민들은 매월 1인당 12kg의 곡물을 유엔세계식량계획(WFP)으로부터 제공 받았다. 국제인도주의 지원기준이 1인당 월 18kg 정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밀려드는 난민들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2016년부터 배급량을 줄인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에는 1인당 월 8.4kg으로 더 줄여버렸다. 설상가상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8월부터는 1인당 월 6kg으로 식량배급이 준다는 말이 돌리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주민들은 식량배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루 세끼를 먹지 못하고, 아침은 굶고 점심 한끼, 남은 걸로 저녁을 해결하는 형편이었다. 배고픔을 참기 어려운 아이들은 학교를 등지고 들판으로 나가 들쥐나 박쥐를 잡아 구워먹으며 배고픔을 달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 코이카(KOICA) 인도적 지원사업을 활용해서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아침에는 옥수수 죽을 주고, 점심에는 이들의 주식인 옥수수떡과 콩 소스를 제공했었다. 그런데 휴교조치가

내려지고,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급식을 만들어 가정에 배급하는 도어 투 도어(door-to-door)급식을 전개했다. 이마저도 얼마가지 못했다. 곧이어 모임 금지 규정이 강화되면서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됨으로써 그동안 유엔(UN)중심 기부자 역할을 감당하던 선진국들이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 여파로 외부 원조가 줄어들게 되었다. 게다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세계의 곡물가격이 상승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곡물 구매량도 줄어드는 악조건이 이어지고 있다.

줄어든 식량배급 영향으로 난민촌의 남자들은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지으려 경작지를 찾아 남수단으로 몰래 넘나들고 있다. 황량한 난민촌에 비해 그곳에는 경작할 땅이 있기 때문이다. 난민촌에서 남수단과의 국경선은 정식검문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땅은 그냥 산이기 때문에 아무런 통행증 없이 공식적으로는 금지된 남수단 국경선을 마음대로 왕래하고 있다. 이들의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필연적이다. 그곳에 코로나19 환자들이 많은 상황인데 왜 위험을 무릅쓰고 가느냐고 한 남자에게 물었더니, “자신들은 코로나19로 감염되어 죽으나 굶어서 죽으나 똑같이 죽는 것이지만, 코로나19는 눈에 보이지 않고, 굶어 죽는 것은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재앙이기 때문에 굶어죽지 않기 위해 식량을 구하러 감염 위험이 높은 남수단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들을 통해 언제 누가 감염되어 돌아왔는지, 난민촌 내부에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난민촌 교회들

부드리 난민촌 교회도 이번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우간다는 대통령의 명령이 곧 법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집회금지령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어גיע 되면 교회 문을 닫게 하거나 전부 체포해서 투옥시켜버리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특히 난민촌에서는 문제예방 차원에서 행정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 대통령의 명령이 더욱 잘 지켜지고 있다. 그 여



정봉진 지부장이 코로나19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파로 부드리 마을에 있는 10여 개 작은 교회들이 2개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가뜰이나 소규모 집회가 진행되는 교회들이었는데, 그 집회마저 금지되면서 교회는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난민들에게 영적인 힘과 은혜를 공급하던 교회의 역할이 멈춰버려 자성도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난민촌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험한 형국이다. 아직까지는 인근 국경지역에서 트럭운전수를 통해 9명이 감염되었다는 발표 외에 다른 소식이 없지만, 남수단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은 난민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알게 모르게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난민촌의 상황이 어렵게 전개 되면서 오히려 한국의 단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아직도 고전 중인 선진국들에 비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잘 대응한 한국이 선진국들의 공백을 대신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난민들을 위한 지원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실제로 부드리 마을이 속한 팔로리나 정착촌(Palorinya Settlement)에 제공된 코로나 감염 예방용품 중에서 1/3이 NGO 더멋진세상이 제공한 것들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난민들에게 위생용품을 배포하고,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마을 곳곳에 물비누가 담긴 위싱스탠드(washing stands)를 설치하고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정에서도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비누배포를 준비하고 있다. 우간다 사람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손을 씻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손을 통해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위생관념이 개선되고 질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NGO 더멋진세상은 난민들의 자립을 위해 가내수공업으로 재봉틀을 이용한 교복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했었는데, 이 기술을 활용해서 천마스크를 만들어 배포할 계

획도 세우고 있다. 난민촌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에서도 규정상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권고하지만, 마스크를 구경할 수가 없다. 돈도 없고, 만드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경찰이 제지를 하니 까 억지로 수건이라도 착용하는 시늉만 내는 형편이다 보니 마스크를 공급해주면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한다.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일은 우간다 정부에서도 반기는 일이다. 부드리 마을이 속한 Zone 1의 경우,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 6세 이상부터 성인까지 마스크 2만개 정도가 필요하다. 현재 마스크 보급 계획을 세우고 시장조사를 하는 단계인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NGO 더멋진세상이 마스크를 2만개 만들어서 Zone 1에 배포하겠다고 했더니 유엔난민기구(UNHCR) 담당자가 그 소식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Zone 2, 3 같은 인근 지역 난민들이 마스크를 받지 못하면 불평을 호소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마스크 보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물량을 준비해야 한다.

사실 지금은 난민촌을 방문하는 것조차 조심스럽지만,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멈춰 있는 인도적 지원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도 현장을 둘러봐야 했고, 앞으로 진행할 시범농장 부지 또한 둘러봐야 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했다. 그래도 한국에서 가져온 KF80 마스크가 있어서 그들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다.

한국이 K방역의 위력을 전 세계에 떨치며 코로나19 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하다. 위기의 때 어려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거대한 코로나19 감염 위기 앞에 놓인 난민촌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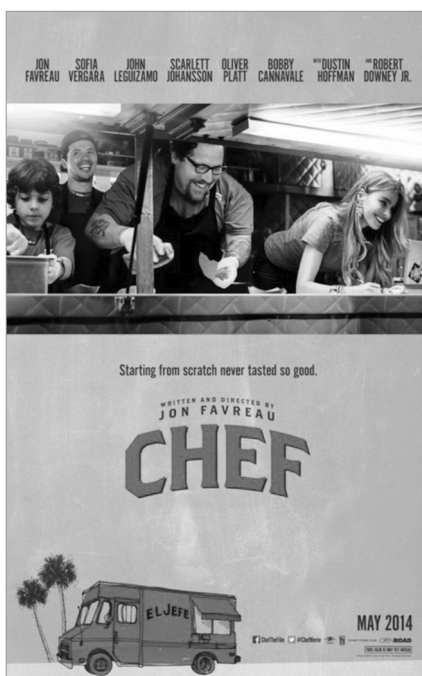
/ 정봉진 지부장(우간다)



영화 읽어주는 목사

이게 가족이고, 인생이고, 진짜 행복이다

영화 ‘아메리칸 셰프’ (Chef, 2014)



영화 ‘아메리칸 셰프’는 요리사 아빠와 10살 짜리 아들이 함께 푸드트럭으로 여행하며 샌드위치를 팔면서 돈독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이야기다. 아빠는 원래 20명 정도의 직원을 둔 그 지역 최고의 식당 ‘수석 요리사’였다. 하지만 유명한 비평가가 아빠의 요리에 별점 2점을 주었고, 아빠가 그 비평가에게 독설을 퍼부으면서 식당에서 해고당한다. 늘 그 식당 사장이 창의적인 요리를 하지 못 하게 막았는데, 자신이 원하는 요리를 마음대로 할 자유가 주어진 순간, 아빠는 ‘쿠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아들과 전(前) 직장동료와 함께 푸드트럭을 타고 이곳저곳 자유롭게 누비며 판매한다.

사실 아빠가 식당에 매여 있을 때는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극히 적었다. 아들과 놀이동산에 가더라도 마음은 다른 곳에 머무는 형식적인 만남이었다. 그러다 아빠가 식당에서 해고당하고 아들의 여름방학이 맞물리면서 부자(父子)는 약 두 달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샌드위치 판매를 시작한다. 아들은 그럴듯하게 요리를 돕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리며 홍보도 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운다.

이 영화는 ‘가족애’를 다룬다. 특히 아빠와 아들의 관계를 집중 조명한다. 아빠와 무엇이더라도 함께하기를 좋아하고, 아빠와 여행 가기를 원하고, 늘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들은 비싼

아빠를 보며 어리지만 조숙하게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그러다 함께 푸드트럭을 꾸미고, 약간의 잡음이 있었지만 아빠와 온종일 같이 시간을 보내며 점점 행복과 기쁨이 드러나는 표정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방학은 끝이 있고, 이혼한 아빠는 양육권이 있는 엄마에게 아들을 보내야 하기에 부자의 여행에도 끝이 다가온다. 과연 아들은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 아빠와 아들의 행복한 푸드트럭 여행기의 자세한 내용은 영화 ‘아메리칸 셰프’에서 꼭 확인해보기를 권한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원하는가?’의 관점에서 이 영화를 보기를 권한다. 자녀는 부모에게 거창하고 완벽한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그저 무엇을 하더라도 ‘함께하기’를 바란다. 고생스러운 푸드트럭 청소도, 힘겹고 불편한 트럭에서의 취침도 아빠와 함께하기 때문에 마냥 즐거운 아들의 영화 속 모습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다. 영화 초반에 아빠랑 함께 있고 싶어서 이것을 같이 해도 되는지, 저것을 같이 해도 되는지 계속 묻는 아들의 애절함과 안쓰러움이 영화 후반부로 가면 증폭되어 느껴진다.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의 양립이 만만치 않다. 영화가 보여주는 이상과 내 삶에 나타나는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괴로움 자체를 느끼지 못하면 발전이 없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리고 이 영화는 잠시 괴로움에 매몰되어 해결책 발견에 도달하기를 주저하고 있던 우리에게 소망이 피어오르게 하고, 통찰을 안겨 준다.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작게 몇 번 데이고, 칼 때문에 몇 바늘 꿰매긴 했지만.”

아들의 안부를 묻는 엄마의 질문에 대한 아빠의 대답이다. 이게 가족이고, 이게 우리 인생이고, 이게 진짜 행복이다.



이강현 목사
(양지 온누리교회)



Q&A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나요, 사람이 썼나요?”

답: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다만 직접 기록하지 않으셨고, 1600여 년에 걸쳐 40여 명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손을 통해 쓰였습니다. 인간의 손을 빌어 쓰셨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쓰였기에 성경은 일점일획의 오류와 모순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으로 기록되었지만 모든 기록은 오실 예수(구약),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신약)에게 맞춰져 있는 영적 기록입니다.”

사람들마다 책을 고를 때 각자의 기준이 있다. 책의 제목을 보고 사는 사람, 주제를 보고 사는 사람, 출판사를 보고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저자를 보고 책을 살 것이다. 어떤 사람이 썼느냐가 실상 책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성경이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읽어도 될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을 빌려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베후 1:20-21).

성경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약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의해 1600년에 걸쳐 기록되었다. 저자의 배경도 다양하다. 성경의 첫 번째 기록인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와 이사야는 선지자였고,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으며, 마태는 세리, 요한과 베드로는 어부, 누가는 의사, 바울은 장막 짓는 일을 하는 가말리엘 문하생 출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진리와 복음을 담았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에서 그러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 있는 성경은 16세기에 걸쳐 쓰였다.

성경은 오랜 시간, 많은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전혀 모순

된 내용이 없으며, 어떠한 오류도 없다. 여기에서 두 가지 성경의 중요한 가치가 발생한다.

첫째, 성경은 완벽한 통일성을 갖는다. 저자들은 모두 다른 관점을 제시하지만 그들 모두 똑같은 한 분의 참된 하나님, 구원의 동일한 한 가지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요 14:6, 행 4:12)를 선포한다. 이것을 ‘성경의 완전한 통일성’이라고 한다. 1600여 년에 걸친 40여 명의 저자들은 동시대 인물이 아닐뿐더러 서로 정보를 교환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통일성을 지닌다. 마치 실력 있는 작가가 탄탄한 플롯을 바탕으로 쓴 시나리오처럼 말이다.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없이 인간의 실력으로만 쓰인 책이라면 통일성은 커녕 모순투성이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린 인간에 의해 오래 전 이미 폐기처분 되었을 것이다.

둘째,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성경은 단지 기록된 당시의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성경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

하여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에 성경이 기록된 지 2천 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수많은 인종과 민족들이 이 말씀에 의해 생명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가까이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신앙을 중단 없는 계속적인 훈련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그 훈련의 중심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훈련에서부터 시작된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기를 소망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이길탁 목사
(요셉공동체)



온 가족이 가정에서 함께하는 성경공부

8월까지 가정신앙문화 만드는 '가스펠 프로젝트'

지난 6월 6일 토요일예배부터 시작된 온 가족이 가정에서 함께하는 성경공부 '가스펠 프로젝트'가 8월까지 이어진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차세대 예배를 영상으로만 드리면서 교회에서 실시하는 차세대 신앙 양육과 소그룹 나눔이 어려워지자 가정에서 차세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록 도입한 프로젝트다.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모든 세대가 동일한 주제(One Point)로 설교를 듣고,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한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1: 위대한 복음> 교재를 활용해서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소그룹 나눔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는 두란노서

점이나 두란노서원 홈페이지에서 연령에 따라(유치부, 초등학교 저·고학년, 중고등부, 청장년용) 구입하면 된다. 두란노서점에서는 교재를 10% 할인해서 판매한다. 교회에서는 차세대 교재(유치부, 초등학교 저·고학년, 중고등부)에 한해서 교재 구입비용 50%를 추가 지원한다.

문의: 02-3215-3523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첫 방송

6월 15일부터 매주 월, 화 오전 8시 20분

CGNTV 대표 강연 프로그램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이하 나침반2)'가 6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 8시 20분 첫 방송된다. CGNTV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볼 수 있다.

나침반2 프로그램은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신앙, 문화, 감성의학, 경제, 정신건강, 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 김승호 교수(영남신대 기독교윤리학과), 최윤식 박사(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이재갑 교수(대한의사협회 신종감염병대응 TFT 위원장), 최영우 대표(도움과 나눔 대표), 이광자 교수(이화여대 간호학과 명예교수), 유미호 센터장(기독교환경교육센터) 등이 출연해 강의할 예정이다.

CGNTV 시청안내

IPTV: KT olleh tv 237번, SK B tv 302번, LGU+ 271번
케이블: D'LIVE 304번, LG헬로비전 322번, 현대HCN 550번, gcs푸른방송 159번
다시보기: CGNTV 웹사이트(www.cgntv.net)
유튜브 채널(https://youtube.com/user/globalcgn)

온라인 일대일 심화과정 수강생 모집

온라인 일대일 심화과정 '예수1.2.3.4' 수강생을 모집한다.

6월 21일(일)과 28일(일) 2주 동안 진행된다. '예수1.2' 과정은 6월 21일 오후 9시부터 10시 50분까지 이기훈 목사, '예수3.4' 과정은 6월 28일 오후 9시부터 10시 50분까지 박성근 목사가 강의한다. 온라인 일대일 심화과정 강의는 ZOOM으로 진행된다(회의방 번호 추후 공지). 6월 19일까지 참가신청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220

신청: 010-5025-4335(문자신청)

온누리 아트비전 정기전

온누리 아트비전 정기전이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8월 14일(금)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카페 갤러리에 작품이 전시된다.

최은정 'Above All', 이미란 '사랑 노래', 신수하 'For Him alone', 김정수 '오직 주님만' 등 크리스천 작가 23명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10-7167-6008

온라인 갈렙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7월 6일부터 8월 24일까지

갈렙선교학교가 7월 6일부터 8월 24일까지 8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동역자 헬퍼십', '선교사 이해와 돌봄', '타문화 이해', '이주민 선교', '갈렙의 비전' 등을 주제로 한정국 선교사, 남명현 장로, 손창남 선교사 등이 강의한다.

갈렙선교학교 강의를 '온누리교회 양육본부' 유튜브 채널에 7월 5일(주일)부터 매주 주일 업로드 된다. 매주 강의를 시청한 다음 과제물을 제출하고, 화상으로 진행되는 조

별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화상모임에 2회 이상 불참하거나 2회 이상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수료가 되지 않는다. 참가신청은 6월 29일(월)까지 아이스콜로 하면 된다. 화비는 3만 원.

갈렙선교학교는 선교지 현장에서 사역하는 특정 선교사와 연합해서 해당 선교사 돌봄, 국내 이주민들을 위한 선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 선교훈련프로그램이다.

문의: 010-3229-5086

<1면에 이어>

여성사역본부장 조호영 목사와의 일문일답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만나십시오”



조호영 목사

2020 마리아행전 주제가 왜 '소망의 힘'입니까?

“요즘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공포에 질리고,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큰 힘을 가진 나라라고 해도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음을 실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지난날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의 힘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2020 마리아행전 주제를 '소망의 힘'으로 정했습니다.”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올해 마리아행전 '소망의 힘'에 예년과 다른 부분입니다. 올해 마리아행전은 정부에서 제시한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하여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집회실황을 실시간으로 각 캠퍼스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집회기간 동안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열 체크는 물론이고, 바코드를 찍어 등록교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편함이 많고, 낮은 모습의 예배일 수 있지만 그만큼 더 큰 은혜와 감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온누리교회 마리아들이 각 캠퍼스 본당에 모여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해 더욱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필사족생 후원금을 예사랑단기보호센터 등 지역복지기관에 기부했다.

한동대 필사족생 후원금 600만 원 기부

10개국 401명, 160개 교회, 필사한 말씀 44,935구절

한동대학교가 지난 6월 4일(목) 필사족생 캠페인으로 조성된 후원금 600만 원을 한동만나(경제적으로 어려워 끼니를 거르는 한동대학교 재학생 후원)에 300만 원, 예사랑단기보호센터(장애인단기보호센터 및 거주시설), 브솔사밧가(정신장애인 공동체생활시설), 선린애육원(아동 양육시설)에 각각 100만 원씩 기부했다.

필사족생 캠페인은 말씀을 필사해서 보내면 말씀 한 구절 당 200원을 취약계층 및 한동대 재학생에게

후원하는 캠페인이다. 지난 3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됐다. 10개국 401명, 160개 교회가 참가했다. 필사한 말씀이 무려 44,935구절이 나 된다.

한동대학교 장순홍 총장은 “‘공부해서 남 주자’는 한동대학교의 정신이 ‘성경필사해서 남 주는 캠페인’으로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한동대학교에서 의미 있는 캠페인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전문가 기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슬기로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법



이주호 팀장
(결혼예비학교
재정강사)

올해 3월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원인으로 실직, 소득 및 매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재난지원금을 소득 수준 하위 70%에게만

지급하자는 의견과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각을 세웠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는 정단간 표를 의식한 정책대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어쨌든 재난지원금이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다. 크리스천들이 재난지원금을 슬기롭게 쓰는 방법이 무엇일까?

재난지원금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매년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을 환급받게 된다. 개인사업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납부한 세금 중에서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일부 사업자 중에는 공제할 부분이 없어서 더 많은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게 되면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환급금을 바라보게 될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급금을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없이 받게 된 공돈, 무임승차를 한 공짜 표로 느끼게 될 것이다.

세금 환급과 성격은 다르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공짜 점심, 공짜 표 정도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평상시 사고 싶었던 것, 먹고 싶었던 것으로 소비하는데 재난지원금을 써버리기 쉽다.

얼마 전 우리 가정도 4인 가족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중에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살펴봤더니 식료품 구입 등 꼭 필요한 것에 사용한 것도 있지만, 굳이 당장 소비하지 않아도 될 곳에 썼던 것도 있다.

재난지원금을
통장나누기 항목에 편입시켜라

‘통장나누기’, ‘통장쪼개기’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급여를 받자마자 사용목



“그 이상으로 어려운 지체와 이웃들을 도와야 한다.
그리함으로써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적에 따라 저축과 소비, 비상예비자금 등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통장에 자동이체를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적금, 펀드 등은 저축통장으로, 갑작스럽게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비상예비자금통장으로, 생활비 등 변동지출은 소비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서 월급일에 급여통장 잔고를 0원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다.

통장나누기를 하는 목적은 통장 하나에서 저축, 투자, 고정지출, 변동지출, 비상예비자금 등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면 현재 자신의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흐름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장나누기를 통해 월급통장과 소비통장, 저축통장, 투자통장, 비상자금통장 등으로 통장을 분산해서 관리하다보면 자금을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번에 수령한 재난지원금을 통장나누기 항목에 포함시켜 보는 건 어떻게?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카드포인트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다 보니 저축이나 투자통장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비상자금통장과 같이 지급당장은 발생하지 않은 일이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을 대비해서 모으고 있는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은 통장나누기 항목에

서 매월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는 소비통장으로 분류하는 게 슬기로운 것이다. 가정에 산 항목에 식료품 및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책정된 예산을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쓴다면 가구 수에 따라서 40만원(1인 가구)에서 100만원(4인 가구)까지를 생활비로 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생활비가 그 금액만큼 고스란히 남게 된다. 이 남은 돈을 저축이나 투자통장 혹은 CMA 같은 비상자금통장에 넣으면 갑작스런 긴급재난지원금을 공짜 돈으로 생각해서 계획 없이 소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소비로
어려움 처한 자영업자 돕는 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빠져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시장회복을 예상하면서 L자, V자, W자 등 여러 알파벳을 예로 들면서 반등이나 장기침체를 놓고 각기 다른 예측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혜로운 소비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돕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재난지원금을 위에서 언급한 생활비 항목으로 활용하

되, 주변에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찾아가 외식을 하거나 물건을 구매해줌으로써 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게 지혜롭지 않나 생각을 해본다.

학창시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What would Jesus do?”라는 물음은 모든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선한 양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작은 일에도 이 질문을 던져보니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른다. 작은 선택에도 고민을 하는 게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문득 이 질문이 떠올랐다.

“예수님이라면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만약 예수님이 재난지원금을 받으셨다면 가난한 과부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 식사를 하는데 흔쾌히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만약 재난지원금을 카드가 아닌 상품권으로 수령했다면 갈릴리 어느 마을 재래시장을 찾아가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심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을 돕지 않았을까?

그 이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고후 8:1~4).

고린도후서 8장은 당시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다. 이때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는데, 바울은 그들(마게도냐 교인들)이 힘닿는 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부치도록 자원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비단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떠나서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재력과 힘대료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어려운 지체와 이웃들을 돕는 것이다. 그리함으로써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해본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함으로써 균등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서 지금의 상황을 다 같이 지혜롭게 극복해나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 온라인 양육 참가자 간증



/ 조영 집사(서대문공동체)

퇴직 후 매년 교회에서 진행하는 스쿨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올해 우리 공동체에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개강해서 두 강의를 신청했다. 한 번씩 들었던 강의들이지만 새롭고 어려워서 꼭 처음 듣는 것만 같다. 남들과 나누는 것을 잘 하지 못해서 웅기종기 모여 강의와 은혜에 대해 나누던 소모임 시간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 소모임 시간이 그림다. 나눔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번 온라인 양육에 참여하며 알게 됐다.

온라인 양육이라고 하니 조금은 편하고 쉬울 줄 알았는데 마냥 그런 것은 아니었다. 강의를 듣고 정리하는데 3시간, 그 주차 과제를 하는데 3시간 정도 소요된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두 개의 강의를 들으니 시간이 꽤 많이 든다. 하지만 그 은혜가 남다르다.

로마서 강제는 두 번째지만 거의 모든 게 새롭다. ‘모두에게 빛을 진 사람’이라는 문구가 바울에게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가볍게 여겨왔는데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됨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졌는가’, ‘지금 내가 덧입혀진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의

가 온 세상에 전해지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자문해보니 첫 번째 질문은 어느 정도 이룬 것 같다. 매일 죄짓고 회개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며 조심스레 하루하루를 살아가자고 다짐했다.

지난겨울 감사일기를 쓰던 것이 어느새 끊어져 버렸는데 다시금 ‘성령일기’라는 제목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며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하루 한 잔 커피 마시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주님을 향한 한 페이지 일기를 쓰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불경한 것이고, 악으로 빠지는 일이라 여기며 실천에 옮기고 있다.

강의를 듣고 로마서를 읽을수록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질실하게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데 번번이 나의 뜻대로 살고 있기에 또 다시 죄의 길로 들어선다. 알면서 지은 죄는 더 무섭다. 나의 현 상태를 자각하며 주님을 바라보자.

■ 목회 칼럼



/ 이승윤 목사(요셉공동체)

“하나님, 당신의 사역을 이루소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언제나 내 기도 한편을 차지하고 있는 이 질문은 ‘변화’를 앞에 두었을 때 더욱 간절해진다. 코로나19에 대해 내색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과 숨기고 싶은 혼란은 이 기도를 더욱 불붙게 만들었다. 요셉공동체는 토요일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 받고, 일요일에는 사역지에서 ODO(One Day Outreach)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요셉공동체의 핵심 사역을 막아버렸다. ‘비대면’, ‘비접촉’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섬기고 있는 한터(새터민), 하랑센터(외국인노동자), 등대교회(노숙인), 화랑교회(군선교) 등 그 어느 사역지도 비대면과 비접촉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다행히 교회의 공감소비운동을 통해 총 5곳의 사역지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지만, 각 사역팀장들에게서 동일한 안타까움을 듣게 되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인가요?”라고 질문하는 청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여러 한계를 마주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던 나의 기

도가 조금 따지는 투로 변하게 되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하던 중에 신학교 시절 선교학 강의에서 배운 ‘Missio Dei(하나님의 사역)’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교회는 자신들이 사역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이며, 하나님은 사역을 돕는 분 정도라면 이해할 때가 많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는 의미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친히 사역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며, 돕는 역할로 교회(사람)를 움직이신다. 말 그대로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사역 앞에서 이전까지 했던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라는 우리의 고민은 무의미해졌다.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해야 한다.

“하나님, 당신의 사역을 이루소서.”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의 뜻을 묻던 기도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을 위한 기도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류현모 집사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교수)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의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세계관이다. 한 사람의 세계관은 주변의 제한된 환경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나무의 뿌리와 같다. 같은 나무라도 토양이나 기후에 따라 현저히 다른 성장과 결실을 보이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세계관은 태어난 국가, 지역, 가정, 교육에 의해 결정적인 지배를 받는다.

세계관을 선글라스에 비유하기도 한다. 선글라스 앞의 색깔에 따라 투과하는 빛의 색깔이 다른 것처럼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해석한다. 각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고 받아들인 정보에 따라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한다. 선택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져 마침내 삶의 열매가 바뀌게 된다. 이처럼 중요한 세계관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고민 없이 살아간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누구에게 영향 받는지도 모른 채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민감하게 자신의 세계관을 살펴봐야 한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삶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지! 성경은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

욱 네 마음을 지키라(잠 4:23)”고 가르치고 있다. 마음과 생각에 세계관에 따른 선택적 정보가 입력되어 우리의 행동, 인격, 그리고 삶의 열매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나는 유교적, 불교적,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뒤섞인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리스도인 아내와 결혼 후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20여 년 생활하다 40대 중반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또 연구하면서, 교회 속에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사역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많이 변화한 것을 느꼈다.

아버지학교를 수료하고 스태프로 섬기면서 가정 속에서 변화한 나를 가족들이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 밖에서의 나의 삶에는 7-8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도 별 변화가 없음을 어느 날 충격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이때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데이비드 노에벨(David Noebel)의 <언더스탠딩 더 타임(Understanding the times)>이라는 책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접하게 되었다. 50페이지 분량의 이 책의 서문을 읽으며 세계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딸과 함께 번역하여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2013년 출판하게 되었다. 책을 번역하고 교정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세계관에 대한 고민과 통찰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교적, 불교적, 정령 신앙적 기반과 무신론적 교육에 의해 세워진 세계관의 기반은 그대로 둔 채로 그 위에 성경적 세계관이 잘 어울리도록 적당히 끼워 맞추는 것이었다.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끼고

있는 세계관의 선글라스가 어떻게 자기에게 세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혹은 고민은 되지만 어쩔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손길을 꼭 필요로 하는 자리가 당신의 눈에만 보이면 그곳이 당신의 사역지”라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계관 정립’의 중요성을 이곳저곳에서 강의하게 되었다.

2013년 책이 출판되었을 때 세계관의 중요성은 많은 분들이 인정했지만, 왜 우리가 동성애, 이슬람, 마르크스레닌주의까지 알아야 하는지 반문하신 분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한국 사회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였고, 나의 눈앞에서 극명하게 충돌하는 세계관을 목격하고 있다. 퀴어축제, 동성애자의 커밍아웃,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 낙태금지에 대한 위헌 판결, 생활 동반자법 입법 시도, 동성결혼합법화 시도 등 네오마시즘을 기반으로 한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의 근간이 되는 가정, 성, 생명윤리 기준을 통째로 뒤엎으려는 시도들을 보고 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가르침에 따르는 반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이들이 숨죽여서 해오던 진지전을 이제는 힘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갈아엎으려는 기동전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국내에 유입된 많은 무슬림들이 그들의 세계관을 자기들이 거주하는 곳에 확장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자유주의, 상대주의, 종교다원주의, 포스트모던주의 등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이념들이 도처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고 있다.

충돌하는 세계관

호세아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라고 한탄하신다. 이제 이 땅의 거둬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와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에 대해 자신을 변호하고 믿음을 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품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을 아는 지식이 모두 필요하다.

이 칼럼을 통해 현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들을 소개하려 한다. 각 세계관들과 기독교 세계관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 속에 오염된 다른 세계관의 요소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세계관을 가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변론하며, 복음을 소개할지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기독교세계관 정립 과정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의 은혜가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시길, 그리고 그 분별을 통해 오직 주만 따르고자 하는 감성적, 의지적 동기까지 제공할 수 있기를...(계속).

묵상: 지금까지 나의 세계관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해 본적이 있는가?

충돌하는 세계관 유튜브 강의

: <https://youtu.be/LOEMfEHoSFU>

* 이 글은 기독교일보에 실렸던 글을 저자의 허락을 받아 전재했습니다.

장로칼럼

사역장로는 시무장로의 미래

백승웅 장로
(서초B공동체,
사역장로회장)

지난 5월 29일, 사역장로회 총회 및 수련회를 진새골 온누리교회에서 가졌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이재훈 담임목사님, 그리고 선후배 사역장로님들

이 함께 모여 친목과 비전을 나누고 교제했다.

이날 총회에서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임 사역장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감사와 함께 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오늘의 사역장로회가 성장해오기까지 많은 일을 함께 해온 임원들, 특별히 지난 3년 동안 사역장로회 기반을 든든하게 세워주신 주수일 장로님(전 사역장로회장)의 노고와 열정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1985년 12가정이 온누리교회를 창립한 이후 온누리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부흥을 거듭했다. 35년을 지나며 7만여 명의 성도들이 동역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2천1만’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사도행전 29장을 계승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도해갈 예수바보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모든 사역장로들은 온누리교회가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섬겨왔다.

앞으로도 사역장로회와 사역장로 일동은 교회와 연합해서 늘 새롭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서갈 것을 다짐한다.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다음과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다.

첫째, 교회 목회 방향과 지침에 따라 사역을 감당해 갈 것이다. 목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귀하게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둘째, 각 개인의 은사와 전문적인 사역을 권면하고자 한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사역했으면 좋겠다.

셋째, 친교와 화합으로 믿음의 ‘시니어 코이노니아’를 만들고 싶다. 아름다운 사랑의 또래 공동체를 꿈꾸며 가고 싶다.

넷째, 노노(老老)돌봄과 섬김, 봉사로써 여생(餘生)을 동역하고 싶다. 그럼으로써 고령사회의 시대적 사명을 실현해 나가고 싶다.

사역장로들은 시무장로들의 미래이다. 따라서 그들의 믿음의 선배로서 매사에 앞서 행해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보석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까지 교회를 돌보고 보듬어갈 것을 다짐한다. 교회에 덕이 되고, 성도들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힘쓰는 사역장로회가 되기를 바란다.

나는 사역장로회의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계획과 목표를 주님께서 섭리해주시길 것이라고 믿는다.

아무쪼록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교회, 가정과 차세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것을 제안한다.

권사칼럼

가정을 위한 꽃씨를 심는 일

이영민 권사
(일산공동체)

“꽃길을 걸으려면 꽃을 먼저 심으시게.”

어디선가 봤던 글귀가 생각이 난다. 아, 그럼 어머니학교가 꽃을 심는 일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길을 꽃길을 만들기 위해 꽃을 심는 과정이 아닐까?

어머니학교 1기를 수료하고 벌써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 어느새 나는 한 교회의 권사요, 또 둘째 손자를 맞은 할머니가 되어 소중한 가정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어머니학교는 아내의 역할, 엄마의 자리, 교회와 사회에 대한 행복한 임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란 존재에 대해 많은 생각과 더불어 무게를 실어 주었던 참 고맙고 소중한 학교였다.

처음 어머니학교가 시작될 적 나는 결혼 이후 무거운 삶의 무게에 버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던 시기였다.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자신이 없어지는 나의 생활에 지쳐갈 무렵 어머니학교가 시작되었다. 많은 격려와 사랑을 받고, 내게 지혜의 샘을 빌려주었다. 어머니학교를 수료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가장 잘하는 은사로 섬겼다. 집에 있는 모든 소품을 챙겨서 세미나실 세팅을 시작했다. 향아리 뚜껑으로는 음식을 세팅하고, 천과 예쁜 소품들로 세미나실을 장식했다. 정말 작은 섬김에도 스태프들과 참석자들이 정말 행복해하며 기뻐했다. 섬김을 통해 나는 성장하며 성숙해질 수 있었다.

몇 년 전 집 근처에 있는 육군부대를 내가 속한 일산공동체에서 섬김 기회가 있었다. 규율과 규칙이 익숙한 지원자들에게 ‘가장 따뜻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자’는 생각으로 집에 있는 소

품들을 챙겨왔다. 내 역량이 부족한 부분에는 딸까지 동원해서 섬기도록 했다. 그날 작은 것 하나에도 소녀처럼 기뻐하는 지원자들을 보며 그들도 군인이기 전에 여성이고, 아내고, 엄마임을 보게 되었다.

일산공동체 비전센터에서도 소규모 어머니학교를 운영했다. 어머니학교를 하고 난 이후 공동체 자매님들의 상황과 힘들, 기도제목들을 구체적으로 나누며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어머니학교 수료 이후에는 애프터 미팅을 통해 풍성한 엄마로서의 삶을 나누며 서로 소통하고 있다. 뉴스레터를 만들고, 찬양리더로 섬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들 공동체의 큰 일꾼이 되어주고 있다. 나 역시 아침 말씀묵상을 SNS에 올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다. 각자 은사로 섬기며 익어가는 자매들과 함께 행복한 꽃길을 걸어 본다.

많은 사건과 시간이 흘러 이제는 웃음을 여미며 흰머리를 자랑하는 할머니가 되었다. 자리에 앉아 문득문득 떠오르는 옛것들을 추억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사모하며 그와 같이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요즘이다.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머니학교는 눈물을 흘리고, 공감하고, 깨닫고, 변화해가는 과정이다. 사랑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꽃씨를 심는 일이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벧 2:4).

코로나19로 인해 어머니학교의 문이 닫힌 지금, 각자 가정에서 열심히 꽃씨들을 심어가기를 기대한다. 다시 모이는 그날에는 꽃이 활짝 핀 서로의 꽃길을 자랑하는 어머니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시 만날 사랑의 꽃이 활짝 필 봄날을 기다린다.

신앙에세이

하청훈 목사
(평택 온누리교회)

“오늘부터 우리 집안은 교회에 간다.”

어느 날 한 장로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이다. 우리 집안은 할

아버지를 통해 복음이 들어왔다. 내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께서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를 보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셨다. 어머니는 1남5녀 중 둘째딸이었는데, 이미 결혼한 이모들과 외삼촌이 모두 딸을 낳아 아들이 더 귀했고 간절했던 것 같다. 이런 배경에서 자라서인지 나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비교적 유복하게

자랐다. 그러나 IMF사태로 인해 집안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지역으로 이사를 다녀야 했다. 당시 질풍노도 청소년 시기였던 나에게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들이 방황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렇게 혼란과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교회 형이 책 두 권을 건네줬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와 <조지 헛필드의 일기>라는 책이었다. 그 책을 읽으며 잊고 있었던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맹목적으로 어머니의 서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품고 부르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하고 본격적으로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했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다. 가난이었다. 부모님은 첫 학기 학비를 마련해주셨지만, 이후 학비를 낼 돈이 없었다. 나는 학비를 벌기 위해 휴학하고 건설현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다. 이후에는 군대를 다

목표점이 아니라 시작점!

녀와야 했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위해 늘 기도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

전역 이후 신학교 학비를 벌기 위해 친구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했다. 어느 날 꿈에서 그 친구 어머니께서 카드를 주시며 마음껏 쓰라고 하셨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라고 생각하며 지냈는데, 며칠 후 꿈에 나온 친구의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다.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지원해주시겠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학부부터 신학대학원까지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 참으로 감사하다.

지난 5월, 나는 목사안수를 받았다. 스무살 신학을 시작하고부터 꼬박 15년 걸렸다. ‘긴 시간을 지나 드디어 목사가 되었다.’

목사안수를 받을 때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있었다. 드디어 목표점에 도달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소스라

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목표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시작점인데... 열린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목사가 되어서 교만해지고 뒤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섬기고 겸손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2017년 인도네시아로 아웃리치를 다녀온 적이 있다. 그때 보았던 한 선교사님의 모습이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 그 선교사님은 가난하고 보호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직접 공사에도 참여하고, 손수 나서서 일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으로 드러내는 분이셨다. 그분처럼 나 또한 항상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목사로서 주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죽보에 드러난 약속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창 12:1~3).

핵심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과 그 가문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약속이 주어진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2천 년 전입니다. 2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약속 하였고, 2천 년 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의 초점은 2천 년 후에 오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이 죽보에 담아 두었습니다.

이 죽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죽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여인들의 이름이 죽보에 나옵니다. 구약의 죽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불편한 것은 이방여인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들은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기구한 운명이거나 그들의 삶이 후손들에게는 매우 자랑스럽지 못한 기록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다말은 남편이 죽었을 때 고엘법에 의해 형제가 삶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 가정이 허락하지 않고 버리니까 창녀로 둔갑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과 만나 낳은 자녀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룓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의 후손이 이새고, 이새의 후손이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가문의 물줄기에서 다말, 라합,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나옵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요, 헛사람이었습니다. 그녀 또한 이방여인이었습니다. 이 네 명의 여인들의 등장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기록일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과거 허물이 있는 조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죽보에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조상의 죽보가 전혀 흠이 없고, 명망이 있는 가문의 죽보였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혈통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모든 예언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은 다윗의 자손이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네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 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네 날들이 끝나고 내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네 자손을 일으켜 네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 줄 것이다”(삼하 7:11~13).

이 말씀만 보면 솔로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솔로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 줄 것”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솔로몬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시대에 이르는 다윗 왕가의 모든 왕들을 보면 우상을 숭배했고, 형제들을 죽이고, 잔혹하게 다루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던, 하나님이 세워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눅 1:32).

로마의 압제시대에 가문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왕국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증거가 요셉이 목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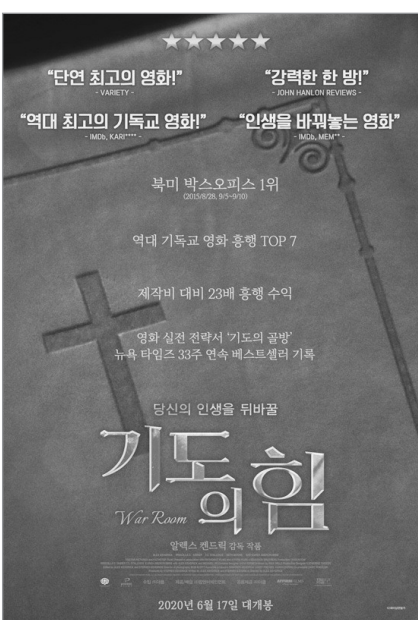
다. 왕의 후손이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의 철저한 실패의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마태가 기록한 14대로 끊을 수 있는 바로 그 세 번째 역사의 실패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 영원히 견고한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 죽보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출생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아قام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16절).

일반적인 표현인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특수 관계를 표현한 형식인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입니다.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표현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동정녀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표현한 것은 아담의 후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인 아담의 혈통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나왔든 아담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입니다. 전 인류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두 번째 아담, 새로운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조상을 가지신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의 조상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 조상도 있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조상도 있었습니다. 라합과 룓과 다말과 같은 부정한 조상도 있었고, 히스기야와 요시아와 같은 거룩한 조상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역사적 정당성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장 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감격스럽고,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은혜로운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불만한 기독교 영화



영화 ‘기도의 힘’의 원제목은 작전실을 뜻하는 ‘War Room’이다. 수많은 영적전쟁을 치루

며 살아가는 우리가 적과 싸워 이길 작전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 공간은 작은 골방이면 된다. 물론 그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책상이 될 수도, 작은 방이 될 수도, 드레스룸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과 깊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이면 된다.

그 공간에서 세워지는 전쟁전략은 ‘기도’다.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적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를 제시한다. 작은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사랑과 용서, 화해, 이해를 불러일으킨다. 가정과 삶을 무너뜨리려는 적의 공격에 기도로 맞서 싸우게 한다.

영화 ‘기도의 힘’에서는 작은 옷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힘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다. 줄거리는 이렇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엘리자베스’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듯했다. 제약회사를 다니며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남편 ‘토니’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딸 ‘다니엘’과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는 듯 보였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

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엘리자베스와 토니는 위태로운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남편 토니의 외도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야 했다.

슬픔과 절망에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내던 엘리자베스가 어느 날 부동산 고객 ‘클라라 부인’을 만난다. 클라라 부인과의 만남이 엘리자베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 클라라 부인은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의 집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을 소개한다. 그곳은 클라라 부인이 영적전쟁의 전략을 세우는 작전실이자 기도의 방인 ‘워룸’이었다. 클라라 부인의 워룸에는 수많은 기도제목들이 빼곡하게 붙어있었다. 갖가지 기도문들과 응답받은 기도제목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클라라 부인은 엘리자베스에게 “기도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과 함께 워룸을 만들 것을 권면한다.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것을 조언한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집으로 돌아와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워룸으로 만든다. 클라라 부

인의 워룸처럼 엘리자베스의 워룸에도 기도제목이 하나하나 붙여진다.

엘리자베스의 기도로 남편 토니가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동안 잊고 있던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돌아온다. 엘리자베스의 가정에는 용서와 치유, 화해, 이해와 같은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기도의 힘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엘리자베스의 가족들은 함께 워룸으로 들어간다. 함께 말씀을 읽고,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가정을 괴롭히는 사탄의 공격 앞에 온 가족이 함께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전쟁을 치르게 된다.

영화 ‘기도의 힘’은 북미 개봉 당시(2015년)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개봉 이후에도 한 달 넘게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유지하며 흥행을 기록을 남겼다. 역대 기독교 영화 흥행 TOP 7에 오르기도 했다. 이 영화가 곧 한국에서도 재개봉한다. 6월 17일부터 서울극장에서 볼 수 있다. 12세 이상 관람가다. 문의: 02-2269-2700

영적전쟁의 작전실 ‘워룸(War Room)’

2020 더멋진세상 “정기 후원약정 캠페인”

가보지 않은 길, 그러나 가야 할 길

소외된 이웃을 향한 우리의 나눔은
속도를 늦출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감염 확산으로 아파하는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후원 방법

정기후원

홈페이지 방문하기
abetterworld.or.kr



정기후원
바로가기



더멋진소식
받는 방법

일시후원

계좌이체 하나은행 573-910010-69205 (사)더멋진세상
기간 6~7월 문의 02-2271-2248

카카오톡 채널 추가 카톡 상단 더멋진세상 검색 후 채널추가
유튜브 구독하기 YouTube 채널명 “더멋진세상 better world”



INTERNATIONAL NGO

더멋진세상
better world

더멋진세상 사역국가(23개국)

세네갈,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부르키나파소, 르완다, 우간다,
말라위, 코트디부아르, 마다가스카르, 필리핀, 몽골,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요르단, 레바논,
멕시코, 니카라과, 온두라스, 몰도바, 우크라이나

더멋진세상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UNECOSOC) 특별협의지위기관으로,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고 더 멋진 마을을
만들어가는 국제 NGO입니다.